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철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 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요금	1752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윤력 7월 5일 금요일	Issue No.	1752
		Date	July 18, 1969

아폴로 11호 계속 순조로히 비행

(유스는 7월 17일 밤, 에이리) 일도 달을 목표로한 아폴로 11호는, 미동부시간 17일 정오지나 3초간 마틴스. 엔진을 일으키고, 궤도를 수정하였다. 궤도수정시의 고도는, 달에의 거리의 반을 넘지않는 지점으로, 지구로부터 12만 6천마일, 속력은 시속 3천 4백마일이었다. 아폴로 11호는 금후 지구의 인력에 저항하면서 비행을 계속하여가는데, 속력이 더러지기때문에, 달에의 거리의 후반의 여행에는 전반의 두배이상의 시간이 걸릴것이다. 달착륙은 20일이 된다.

한편 소련의 루나 15호는 달궤도에 닿는데, 항공우주국에서는 "루나 15호 궤도가 높기때문에 아폴로 11호와 충돌할 위험은 전혀 없다" 라고 말하였다.

미.소 양국의 순직비행사의 기념품

니슨대통령은 아폴로 11호의 3비행사가, 순직한 미.소 우주비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수건의 마크와 메달을 가지고있는것을 명백히하였다. 마크는 아폴로 1호의 희생자고로 사망한 가스.그리슨, 에드. 화이트, 라자.체워의 3비행사를 기념하는것, 또 메달은 최근 소련을 방문한 아폴로 8호의 프랭크. 보벤씨가 고 유리.가가린, 우라지미.루코마코프 양비행사의 미망인으로부터 받은것, 암스트롱, 올드린 양비행사는 어들을 월면에 두고올 예정이다. 어제의 밤사후, 비행오차가 거의 없기때문에, 제 1차 궤도수정을 승락되고, 3우주비행사는 우주선내에서 신변정리를한후, 수주복을 벗고, 잠을 잤다. 암스트롱, 올린스양비행사는 7시간, 올드린 비행사는 5시간반 잤다고 전해왔다. 오늘의 비행계획을 심의한후, 비행관제중앙소는 루나 15호관제를 위시하여 "멕시코에 입하는 잇미는 머리털을 2각가야한다" 라는 뉴-스에 이르기까지, 지구에서의 움직임을 전했다. 올린스비행사는 "그 멕시코입국전에대해서는 우리들은 출발전에 다 머리털을 2각로왔기때문에 걱정없다" 라고 농담을하였다. 3비행사의 밤사이때의 태도는, 전회의 아폴로 10호의 승무원에 비교하여, 지상편의 통신은 필요의 최소한으로하고있다. 기자단중에서 "암스트롱선장등 신경질에 걸려있지않나" 라고 걱정하는 질문도나왔는데, 우주항공국당국자는 "이것은 단순히 승무원의 성격문제이다.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레페비콘 중계

또 어제 3비행사는 사령관의 새 레페비. 케페라틀서서, 예정외의 16분반의 레페비중계를하였다. 이것은 레페비기구의 전전술위해 암스트롱선장이 요청한것이다. 지구에 초점을 마인후, 암스트롱선장은 지상으로부터 몇번이고 재촉을받고, 잘게 해설하였다. "6만마일의 고도로부터 북미 대륙의 대부분과 남미일부가 보인다. 하와이 제도는 볼수없다. 그러나 북미의 서해안은 확실히 보인다. 미국, 4생. 조아킨국, 셀라코지와 멕시코이다" (제 2편에 계속)



(제 1편으로부터 계속)

"지상의 에페비론으로는, 이것이 전부 보이지않을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 그때 솔트레이크가 "에이 유스온" 라고 받아들였다. "좀 지구를 돌려서, 출판 보이지 말고 단적으로 보게해주세요" "안됩니다" 편집장소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좀 조정이기가 중요합니다. 출판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받아들였다.

달 착륙시이나 열광적인 환영

(뉴욕 7월16일밤, 에이피) 뉴욕에서 입구입관부인 신문, 잡지, 에페비론, 테이디오가 정정오로 대선, 독립기사와 손서로 우주산업, 재산기, 약동동 아틀라판의 협제가 반사에 관해서, 크게 자기 의사제정을 선언하고 조른 경기를 보고있었다. 16일은 에페비론, 테이디오가 반사의 모양을 시시각각 전하였는데, 뉴욕시내는 특히 보통과 변함없이, 국민도 의외에 안정이다. 극편을 전락아머은 그동고생은 "어젯술때부터 반사가 자주있었기때문에 잠만다"라고 받아들였다.

또 어느 기사는 "반사만으로는 미국인은 흥분하지않는다." 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의 아틀라 11호가 인류최초의 달착륙이라는 임무를 가진것이기때문에, 다소의 불안은 가지고있고, 에페비론을 보는 사람중사이에는 "무사히 돌아올것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있었다. 미국인의 관심은, 암스트롱선장등의 달착륙을 보았을적에, 처음으로 열광적으로 볼것으로생각된다.

소련의 루나 15호 18일시 달 착륙?

(영국 포도벨.뱅크 7월17일밤, 에이피) 포도벨.뱅크원본대의 사.비.라벨원본대장은 17일 "소련의 루나 15호는 달로부터 6백 내지 천2백마일의 달주위궤도에 들어갔다. 아마 18일아침, 달에 착륙을 계획한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 본대장말에의하면, 루나15호는 지상에 재료를 송신하고있다. 소련의 라스송신은 "루나15호는 달의 인공위성이 되었다" 라고 보도, 달 착륙의 의도는없는것같이 전하고있는데, 라벨대장은 "현재의 소련의 우주제위의 달제에서 달위성을 보내는것은 아무 의미가없는것이다. 루나16호, 또는 그의 임무를 달면에 착륙시켜, 들, 암. 석을 수집한 작정인것이다" 라고 받고있다.

월러 등참본부의장 비에트남에서 회담

(사이곤 7월16일밤, 에이피) 권수가 장장한 비에트남전선에 16일 월러미용안참본부의장이 도착하였다. 미군사령부대령인제의아면, 동희장은 4일간 체재, 사령부와 전선본부에서 회담을 하고, 4주간의 전우상해에대해서 검토한다. 마케인래명양사령부용참사령관도 월러의장에앞서 도착하였다. 회담의 내용은 권수가 장장한 상해에대해서 미군도 공격작전을 축소하여야안것인지 또 동시에 축소하는경우의 예속동과, 2만5천명이상의 전병제퇴에대해서도 검토한것으로보인다. 메아드국방장관은 15일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미군은 여전히 적에 최대의 압력을 주도적 작명명령을 받고있다. 그러나 이것에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다" 라고 받아들였다. 미군사령부는 "15일부터 16일에전진 적의 야간도격은 26개소에걸쳐 있어서, 미군은 사망 1명, 부상 9명을 내었다" 라고 발표하였다. 또 사이곤 북방에서 미드릭수송대가 적의 습격을 만나, 사망 1명, 부상 6명을낸 외에, 15일 철창 에티플러 1기가 격추되었다. 미군은 소규모의 정찰기 위 적의 무기량식의 적반을 중점으로 다이닝시부근의 육저너상등에서 작전을 전개하고있다.

21일을 축하일로 성명

(와싱튼 16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암스트롱, 솔트레이크가 달면에 인류최초의 안발을 떠나는 21일을 "국민참가의 날" 도하는 성명을 내었다. 축하일을 늘리는것에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한정 되어있기때문에 "국민참가의 날"의 형식을 취한것이다.

중공군 백만의 파견을 히노이측 거부 비에트공 문서가 신사실

(사이곤 7월17일밤, 중공) 사이곤의 정보국이 16일 팔란바에의아면, 동맹국측의 정보관계자는 중공이 북비에트남군대의 지도부에 북비에트남에 군대의 파견을 압력을 쓴 매방전선의 문서를 실종이 검토하고있다. 이것은 매방전선의 우방사령부에서, 동맹국군이 손에 넣은것으로, 동맹국측의아면, 중공측은 병력 백만명의 파견을 말해왔는데, 북비에트남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시기는 확실치않는데, 또 미군이 아노이 근처를 폭격한 1966년 중반에도, 중공은 북비에트남 남위를 위해서 쟁쟁기 2백기와 그의 승무원의 파견을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고한다.

거부의 이유

동맹국측의아면, 북비에트남이 중공의 군대제동을 거부한것은, 중공의 개입이 미국측을 더 자극하고, 잘못하면 제3세계대전에 불을 부치게될지도모른다고보았기때문이다. 북비에트남 으로서는 인력은 자국에만 의존하고, 끝자나 병기만 외국의 원조를 받아드릴 정책이라는것을 명백히하였다고한다.

오기나와 반환교섭에는 아직 많은 곤란

(대관 7월17일 중공) 아이지 일본의상은 16일오우 오사까지의 신평사가 오렐에서열린 국련 협회관서본부에서 강연, "오기나와의 시정권반전은 이번 가을의 사.니슨회담에서 한의가 성립되더라도, 국외의동에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반환의 시기에는 72년이 계속된다. 합의후에도 사전협의의 문제등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반환교섭에는 아직 많은 곤란이 있다" 라고 강조하였다.

중미의 혼주라스와 엘살바돌 교전상태

(혼주라스.데그시감바 7월15일밤, 에이피) 중미 혼주라스와 엘살바돌의 양국이 15일, 선전 도고입시 교전상태에들어갔다. 양국이 다 상대측이 침입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와싱튼의 미주기구는 양국에대해서, 평화부대의 파견을 명령, 오늘밤 도착한 예정이다. 혼주라스측은 14일 산바돌군이 2개소로부터 침입하였다고하고있다. 전애전바에의아면, 오코레페주에, 사.라.데. 로란의 양모시가 상대측군의 공격을 받고, 다수의 사상자를 내었다. 한편, 산바돌측은 혼주라스군 원병이 국경을 넘었다고주장, 엘난데스.엘살바돌대통령은 긴급각료회의를 열은후, "정당한 방위물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양국의 관계는 국경문제를사고, 전부터 마찰이있었는데, 최근 더 악화한것은 사우가의 월드.담 선발권을 제기고, 나라를 짓고 승패에 열중할결과, 두 시합중 혼주라스는 엘살바돌에대해서 국고단절, 월드.담 전사부국에서는 6월27일, 중립지대의 예시코.시리틀 선택하여 양국의 결승권을 한결과, 3대2로 엘살바돌이 이긴것이다.

중미 양국 정전

(혼주라스.데그시감바 7월17일밤, 에이피) 3일간 교전상태에잇는 엘살바돌과 혼주라스 양국은 미주기구평화유지위원회의 정전안을 수락, 협지시간으로 17일오전 5시에 휴전으로 들어갔다. 16일, 수.람드국련사부총장은 양국에대해서 평화협정은 요원하고있었다.



(제 4 편)

二일간 보이콧후에 회의수행에 동의 중공측이 소련에

(모스크바 7월14일판, 에이리) 13일의 라스봉신에의하면, 아바모스크에서 제의들의 아들과
동역의 특별세일서서의 선박함행에관하는 중.소 합동위원회회의의 중공대표단은, 2일간의 회의
모이틀루, 다시 회의수행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통과하여왔다.

해설...소련은 전에 극경정하인 위원회가 "중공측의 회의수행거부예의때, 결렬하였다" 라고 발표
하였는데, 13일, 중공측의 요청으로 수행이시지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당시간중에서의 상후
모순한 소련측의 발표는 소련의 선국이였다는 감이 강하다. 라스봉신에의하면, 중공대표단을
7일의 플린스기모에서의 주력중공주, 12일에는 회의수행을 거부하고, 소련측의 회의수행의 요청
도 거부하였다모이는데, 소련은 이것으로 회의는 결렬한것이라고 만만안 모양이다. 그러나
그때, 중공측이 무십이 위원회 결단의 선언을 한것이라고는 보이지안고, 중공의 "거부"를 만
아자면 회의의 일시중단이아는 성격의것이라고한다.

二二의 재일미군기지를 가까이 정리결정

일본에있는 미군기지 54개중 22개소는 가까이 정리, 결 의한다는것이 11일, 일본과 남베트남
으로부터 돌아온 대령장지역미군총사령관 존.마제인제독에의해서 정식 발표되었다. 재일 미군
기지의 정리의 문제는, 일.미양국간에 오래 문제가되어있었다. 이문제는 작년 12월이때 양국
군사협회의 회의 때로서 검토가 계속 되어있었다. 이번의 방임을 기피로 마제인제독은 2일간의
결정서 아이지 의상, 아미다방위정장관 기와의 권제위와 지점협의의 결과, 드디어 22개소의 기지
정리물라게결정이다. 기지정리에 선정된 기지, 그리고 이들기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정리
되느냐에대해서는 마제인사령관은 언급을 하지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기지중의 몇개는 폐지
되고, 몇개는 일본에 이관, 몇개는 정지 용합될것으로보인다. 남은 미군기지에대해서도 출함
정리의 가능성이 상설, 일본.미국군사협회의회에서 검토가 계속되고있다. 마제인사령관은 덴중,
스미스의 사령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하였다.

간사장

저의들의 모친님이신 미수산여사께서 6월19일에 마성에서 별세하셨다는 부음편보를 받고, 후녀
육기미가 모이하여 미주좌처에 산재한 남미동기간을 분머서 모친님의 장례의 권한 사들 의용합
주, 모함으로 이혼하여 29일에 보드워장때소에서 개관포의식을마고, 장례식을 거행한시에 원국
에서 아용다운 화속과 돌집까지 보내시고, 조의를 표시하여주시고, 시간상관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때왕하여 손수 협조하여주신 아저씨와 아주어님들과 청년친지에게 제재미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예의있는 상제인들 아오나, 어머가지도 불편한 때란이잇서서, 예의를 갖추지못
하우고, 대령장주보의 죽원을 얻어, 감사의 뜻을 담수드미오니, 예외부족을 사람으로 권서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소식

고미수산여사의 자녀 임종 모택

본담 김복새여사는 첫딸전에 아메바 모지의 주례를 방배하고 주나미도 예전집으로 이사하여 제복
아가, 모이나루아 미육군병 원근처의 신국가육을 매입하여 지난 6월말까지 이사하였다모한다.

동지 피로상부원이신 본담 박봉조씨는 숙원으로 권병원에 입원하여 수주일동안 치료중, 병행하
명약의 도움을 얻지못하고, 7월12일에 86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장례식을 19일상오 9시부어
마오 9시반까지 보드워장때소에서 장례식 거행을 한다모한다.

